https://doi.org/10.30775/KMES.51.3.53
음악교육연구 제51권 제3호 pp. 53-74 (2022년 8월) ISSN 1229-4179 (Pri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51, No.3, (August, 2022) ISSN 2713-3788 (Online)

엘리엇의 반성적 음악교육을 활용한 다문화 음악교육 지도 방안 연구*

A Study on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Applying the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by David J. Elliott

김보경** · 백재연***

Bo Kyoung Kim · Jae Yeon Paik

초록 본 연구는 엘리엇의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을 고찰하고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음악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음악의 '문화'와 '맥락'을 습득하는 다문화 음악교육 지도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엘리엇의 다문화적 관점을 수용하고 그가 제시한 다문화 음악교육 유형 중 역동적 유형에 의해 교육자료와 활동 내용을 구성하였다. 인도 종교음악, 동아프리카 동요, 하와이 무용음악, 쿠바 대중음악으로 하는 새로운 다문화 악곡을 도입하고 종교, 언어, 종족, 역사의 주제별 맥락을 설정하였다. 이 악곡과 맥락을 중심으로 하여 엘리엇의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 프로그램 7단계에 따라 작사, 작곡, 신체표현, 즉흥연주의 음악만들기 활동의 지도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음악교육, 데이비드 엘리엇,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 맥락, 음악만들기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lliott's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and pursued the acquisition of the 'culture' and 'context' of multicultural music through reflective music activities such as social communication. The materials and contents are based on the Dynamic multicultural curriculum of Elliott, which contains his multicultural point of view about music. This guidance plan was designed for writing lyrics, composing, physical expression, and improvising music-making activities using the seven stages of Elliott's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Key words: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David J. Elliott, the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context, music

* This thesis is a revision and summary of Kim Bo Kyoung's thesis for her master's degre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22.

** First author, E-mail: Jasmine914@sen.go.kr
Teacher, Seoul Seogang elementary school, 113, Dongmak-ro, Mapo-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ypaik@snue.ac.k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Received: 31 May 2022, Reviewed (Revised): 4 July (9 July) 2022, Accepted: 30 July 2022
© 2022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 문화적 차원의 상호 의존 및 협력을 가속화시키면서 여러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는 다 문화화 현상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다(Choi & Lee, 2012; Kim, 2010).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 급격한 문화와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활발히 소프트웨어 및 인간자원의 교류를 이어오며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Han, 2021; Hwang, 2010). 하지만 통일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인식 속에서 국내 이민자들의 정체성 혼란과 집단 내 부적응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Kim, 2010).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국제결혼으로부터 형성된 경우가 많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Hwang, 2010). 또한 이민자와 그 가정이 겪는 불평등 또는 갈등의 문제들이 단지 개인의 부적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역사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Kim, 2010). 특히 교육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음악교육은 인간의 정서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Chung, 2007). 단지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함이 아닌 다수의 인식 변화를 통해 소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다문화 음악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악교육은 기본적으로 예술적 표현력과 창의성, 문화적 소양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다문화 음악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음악교육 자체가 가진 예술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동등한 가치로써 충분히 경험하며, 음악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실천적 · 활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엘리엇(David J. Elliott)은 음악을 사람, 신념, 문화, 역사 등 무한히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엮인 통합의 문화로 보았고, 음악교육을 통해 마음껏 음악을 만들고 활동하며 사회적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Elliott & Silverman, 2021). 그리고 그의 저서 Music Matters 2(2019)에서 학교 음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맥락 안에서 음악을 배우고 행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실습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바로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The reflective musical practicum)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 음악교육은 주변 국가의 악곡과 문화를 소개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므로 깊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실질적인 수업 자료 또한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할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악의 다문화성을 강조한 엘리엇의 '포용적' 철학을 기반으로한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문화 악곡과 맥락을 설정하고, 맥락 안에서 행할 음악 연주 및 창작 활동 내용을 고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엘리엇의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을 이용한 다문화 음악 수업이 문화적, 음악적 활동을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다. 연구에 활용할 다문화 악곡 및 맥락은 엘리엇이 학교 다문화 음악교육의 형태로 제시한 6가지 유형 중 음악 활동을 통한 사회적 맥락이 강조된 역동적 다문화 음악교육 과정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그가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의 적용을 위해 제안한 수업 설계의 일곱 단계를 활용하여 수업 중 실행할 음악 활동을 구안하고, 수업 목표를 설정하며, 수업전략들을 활용하는 다문화 음악교육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음악교육

다문화주의는 그 시작이 종족적, 문화적 갈등에서부터 파생되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발전해왔다. 1972년 미국 공법 92-318에서는 "다종족 사회로 이루어진 미국은 각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에 있어 그 동등함을 인정한다(Montague, 1988, Requoted)."라고 명시하였다(Bang & Cho, 2005). 1970년대 이후로 다문화주의를 기조로 발전해 온 다문화 교육은 특정 문화 또는 인종에 대한 우열 의식을 없애고 공존, 평등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 핵심이 있어왔다. 구견서(Koo, 2003)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며, 주류집단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타파하여 인종적 문화적 갈등과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 음악교육 역시 교육자료로서 폭넓은 문화권의 음악을 선정하고, 그 음악 속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 맥락의 학습을 추구한다. 볼먼(Philip Bohlman)과 버그런(Katherine Bergeron)은 제도권 음악교육과 음악연구가 서구 레퍼토리 중심의 정전(클래식, canon)에만 초점을 맞춰온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문제 삼았다(Kim, 2011). 1998년 국제음악교육협회(ISME)는 선언문(Musics of the World's Cultures: A Source book for Music Educators)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인 음악을 모든 문화의 인간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고,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 음악은 세계 음악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Bang & Cho, 2005). 이처럼 처음 다문화 음악교육의 발생은 국가 자체가 다인종으로 구성된 특별한 속성을 가진 사회의 문제에서부터 발생 되었지만(Byeon, 2004),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점차 전 지구적으로 확장 · 연구되어가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의 개념이 인종적 · 민족적 관점으로 제한되었던 초기의 관점에서 종교, 성, 계급, 언어, 세대, 사회적 관계, 장애 등 여러 문화 집단에 대한 존중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Hwang, 2010). 다문화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다문화의 범위도 국가와 인종의 경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집단과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 다문화 음악교육의 가치

음악적 능력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음악교육을 통해 언어를 익히는 것과 같이 음악성을 키워갈 수 있다(Kwon, 1999). 또한 음악은 단순히 소리, 악곡, 또는 스타일이 아닌 사람, 과정, 맥락(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기술적 등) 등이 다양하게 뒤섞인 사회적인 실천이므로 음악의 형태와 개념은 그 문화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생활양식에 따라 다르고 복잡하다(Elliott & Silverman, 2021).

다시 말해 음악은 인간의 본성과 연관된 예술적 매개체로서 인간의 감정, 사상, 언어, 역사 등을 폭넓게 내포할 수 있다. 음악은 인류가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고 감정의 표현, 소통의 도구, 종교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그 문화권과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온 다문화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곧 문화적 다양성(역사, 사회, 종교 등)을 체험하고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와 목표를 지닐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의 체험은 타문화 또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맥락을 향한 경계심을 낮추어 융화와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이것이 곧 다문화적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음악교육은 이해와 공존, 관용, 평화와 같은 세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엘리엇(Elliott, 1995)은 음악교육이 음악 작품만의 위대함을 학습하는 지엽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음악을 하나의 문화로써 교육해야 하고, 학생들이 생소한 음악 문화를 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공유와 존중, 토론의 방식으로 음악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이 각자의 음악적 취향을 형성하고 음악적 이해를 발전, 성장시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음악은 개인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므로 다른 어떠한 직접적인 다문화 언어, 사회 교육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문화 음악교육은 음악적 개념을 확장함과 동시에 예술성과 음악적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조효임(Cho, 2006)은 모든 문화권의 음악이 나름대로 독창적이며 훌륭한 음악적 어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인도의 힌두 리듬을 차용한 메시앙과 존 케이지, 인도네시아의 가믈란을 활용한 볼레즈 등 다문화 음악을 소재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 낸 유수의 작곡가들을 예로 들면서 세계 도처의 음악이 음악가들의 영감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음악적 개념의 확장과 창의성의 계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권의 서열이나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경계를 없애고, 독창적인 어법을 가진 수많은 종류의 음악을 접함은 물론, 단순한 음악 감상과 문화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음악가들과 같이 실질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 음악교육의 가치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표가 '음악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music)'에 있는 것인지 '음악 안에서의 교육(education in music)'에 있는 것인지는 시대에 따라 늘 철학적 논쟁이 뒤따라왔다. 이것이 '맥락주의'와 '보편주의' 사이의 논쟁이다(Kim & Kwak, 2019). '보편주의'는 리머(Bennett Reimer, 1932-2013)의 심미주의 음악교육 철학을 근간으로 한다(Park, 2001; Kim & Kwak, 2019). 예술 작품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다른 어떤 요인(사회적, 심리학적, 문화인류학적 등)보다도 음악 예술의 본질을 설명한다는 관점이다(Park, 2001). '보편주의'에 따르면 타 문화권의 전통 음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작품의 예술성을 미적체험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기에 과거 우리의 다문화 음악교육이 사회적 맥락보다는 음악 자체가 가진 본질과 형식에 치우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엘리엇은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을 통해 심미적 음악교육이 음악의 형식에만 치중하여 음악이 담고 있는 사회성, 즉 음악이 가진 배경과 용도 등을 경시했다고 보고 비맥락적인 심미주의적 교육철학을 비판했다(Elliott & Silverman, 2019). 또한 호주의 다문화 음악과 교육의 관계를 다룬 던바-홀(Peter Dunbar-Hall)은 음악교육이 '소리로서의 음악'과 '문화로서의 음악'을 모두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음악교육이 '소리로서의 음악'에 치중함으로써 '문화로서의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 소홀하였다고 지적하였다(Kim, 2011). 최근의 다문화 교육의 경향은 음악의 맥락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시민교육의 성격을 내포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세계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하지만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맥락주의'가 가진 이중성을 심도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실린 다문화 음악교육 악곡은 대개 그 문화권의 '전통 음악'이다(Kim, 2014). '맥락주의'의 입장에서 타 문화의 전통 음악은 민족적 정서 및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의 정수이고, 전혀 다른 타 문화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 음악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Kim & Kwak, 2019). 이 때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에 내재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에 있으므로(Kim & Kwak, 2019) 예술로서의 음악 교육은 소홀해지고 민족적 맥락 학습으로 음악교육이 치우치게 될 우려가 것이다. 점차 맥락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다문화 음악교육이 간단한 가창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음악을 소개하고, 악곡이 탄생한 국가 또는, 민족의 특징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맥락주의와 보편주의의 극단적 추구는 모두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음악의 형식과 맥락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음악을 활용한 적극적이고도 깊이있는 음악적 활동과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맥락을 학습하도록 하고, 종족 음악의 굴레에서 벗어난 '다문화'에 대한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4. 엘리엇의 역동적 다문화 음악교육

엘리엇은 그의 저서 Music Matters 2(2019)에서 음악적 실천을 위한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이라 명칭하고 이 실습의 철학적 토대로서 '포용적 음악교육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포용적 음악교육 과정은 다양한 음악, 전 세계적인 음악적 실천을 음악교육에 접목하여 다문화주의의 가치, 그리고 민족 중심의 문화 구분에서 좀 더 확장된 다양한 맥락의 문화 공존에 관해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학교 음악교육에서 우리가 다문화 음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보일 수 있는 6가지 다문화 음악교육 과정의 유형을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동화주의(assimilationist), 둘째는 합병주의(amalgamationist), 셋째는 열린 사회(open society) 유형, 넷째는 보호주의(insular multiculturalism), 다섯째는 수정(modified) 유형, 마지막은 역동적 다문화 음악교육 유형(dynamic multicultural curriculum)이 그것이다.

그 중 역동적 다문화 유형은 음악 문화의 맥락에서 표현적으로, 행동으로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음악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식이다(Choi, 2020). 학생들은 역동적인 문화의 공유와 경험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Choi, 2020), 주제별, 개념별로 다양하게 조직된 맥락안에서

수업할 수 있다(Bang & Cho, 2005). 한국은 미국처럼 다문화의 뿌리에서 구성된 문화가 아니라 단일 문화에서 시대적 변화로 인해 점차 다문화가 확장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학급에서 다문화의 구성 형태도 한국인 주요 구성 아래 다문화 학생 한두 명 정도이기에 교실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여러 종류의 소수 문화 그룹을 형성하기 어렵다. 학급 구성원 한두 명이 속한 민족 문화 중심의 다문화 교육은 자칫 자연스럽지 못한 접근으로 또 다른 의미의 음악적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제한이 있다.

5.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프로그램의 개요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 교사는 다음의 7가지 결정 사항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Elliott & Silverman, 2021).

[Figure 1] Elliott's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design phase

첫째, 어떤 종류의 음악 만들기 활동을 수업에 적용할지 결정한다. 엘리엇의 음악 만들기는 음악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실행하는 음악 실천 활동으로서 모든 종류의 음악적 창작 및 표현 활동을 포함한다(Elliott, 1995). 즉흥연주, 작곡, 편곡, 연주, 지휘, 신체 표현,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를 이용한 소리 만들기 및 녹음, 힐링, 예배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음악 행위를 맥락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Elliott & Silverman, 2019; 2021).

둘째, 어떤 속성의 맥락을 지닌 다문화 악곡을 다문화 음악 수업에 도입할 것인가 하는 음악적 도전 자료를 결정한다. 선정된 다문화 악곡은 학생들의 음악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업 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다문화 수업 안에서 요구되는 학생의 음악가로서의 자질, 또는 다문화 악곡을 감상하며 탐색하는 감상가로서의 자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엘리엇은 음악을 만드는 활동 못지않게 감상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감상을 통해 서로의 음악활동의 과정을 비평하고 피드백하는 반성적 상호작용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앞의 세가지 설계과정을 포함하는 구체적 목표로써 수업 전략과 절차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섯째, 수업 전략을 세운다. 엘리엇이 소개한 교수・학습 전략은 모델링(교사의 시범), 코칭(피드백), 스캐폴딩(학습지원), 명료화(학생의 수업활동 발표), 비교반성(공유와 성찰), 탐색(학습자 주도의 문제해결)의 6가지이다.

여섯째,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 전략을 수업 내에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수업 절차와 내용을 계획한다.

일곱째, 스스로 음악활동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설정한다.

6. 선행 연구의 고찰

이지선, 조효임(Lee & Cho, 2004)은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의식과 현장 실태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문화 음악교육에 활용할 교육자료가 부족함을 주장하면서 모든 문화권과 시대를 초월한 다문화 음악이 수업에 도입되고 다양한 유형의 수업 자료가 계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승은, 박봉수(Choi & Park, 2013)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를 위해 전통 민요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이국의 삶과 문화를 담은 세계 음악을 연구하고 소개하였다. 특히 다문화 음악이 그 국가의 음악으로서 가진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음악의 탄생 배경 및 연주 상황, 음악의 역할 등 주제별 맥락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최은식(Choi, 2020)은 최근 다문화 음악교육의 동향을 분석하며 엘리엇이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에서 제시한 다문화 음악교육 유형을 평가 준거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의 물결에 반해 감소 추세이고 단순한 타문화 이해 교육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엘리엇

의 다문화 음악교육 유형 중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한 유형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준영(Lee, 2012)은 엘리엇의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의 수업전략들을 활용하여 PCR이라는 지도안 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합창 수업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엘리엇의 반성적 음악교육 전략이 학생의 음악성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가치를 재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한 엘리엇의 포용적 음악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 및 방법을 설계하고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의 과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지도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엘리엇의 역동적 다문화 교육유형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교육적 의미가 있는 주제 문화, 즉 학습 맥락을 추출하였다. 이후 실제 지역사회에서 연주 및 활용되고 있는 여러 세계 음악들을 고찰하고 연구에 사용할 학습 맥락이 담긴 다문화 악곡을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로서의 다문화 악곡 및 학습 맥락을 선정한 후 이를 지도하기 위해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 7단계를 적용하여 다문화 음악교육 지도방안을 설계하였다.

다문화 악곡 및 학습 맥락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적 색채, 종교, 역사, 언어, 축제, 생활상 등 주제별 맥락을 설정한다. 국가 또는 종족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수업에서 간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 악곡의 발생과 활용의 배경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둘째, 평소 익숙하지 않은 서로 다른 여러 문화 집단의 악곡을 설정한다. 생소한 문화와 음악을 경험하면서 문화적 편향성에서 벗어나고, 교실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주류, 비주류의 문화와 관계없이 새롭고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들만의 음악적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토대로 북미권, 서유럽권의 음악을 지양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부 아메리카 등 지역별로 고르게 악곡을 선정한다. 이는 포괄적 다문화의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Kim, 2020).

넷째,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쉽게 배우고 음악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실제 다른

문화권 어린이들이 향유하고 있는 음악을 선정하되, 어린이 음악이 아닐 경우에는 멜로디와 리듬이 단순하고 패턴이 반복적인 접근이 쉬운 음악을 선정한다.

위 네 가지 요목을 준거로 선정한 4개의 학습 주제 맥락과 악곡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ulticultural music and learning context

Learning Context	Title of songs	Context	Region	Genre
Religion	Murali manohara	Hinduism	Asia (India)	Bhajan for children
Language	Mabata madogo	Swahili	East Africa	Children song
Tribe	Pupu hinuhinu	Polynesian	Oceania	Hula
History	El manisero	Spanish colonial rule, The influx of black slaves	Latin America	Afro Cuban-Son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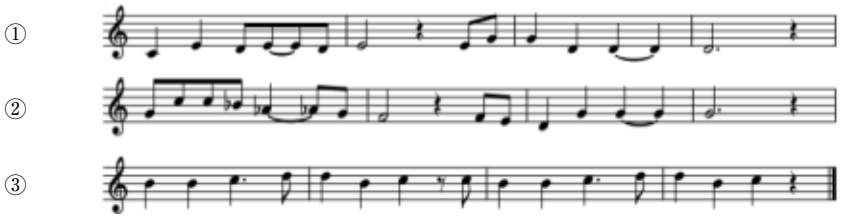
1. 종교적 맥락: 어린이 바잔, 무랄리 마노하라(Murali manohara)

종교적 맥락의 다문화 음악 수업에서는 힌두의 기도 음악인 어린이 바잔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그 종교적 역할 및 배경이 되는 힌두 문화에 대해 탐색한다. 악곡이 가진 맥락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노랫말을 작사하여 원곡에 붙여 연주함으로써 새로운 종교적 맥락의 음악을 창작할 수 있다.

무랄리 마노하라는 Abirami Audio Recording에서 출시한 어린이를 위한 바잔 음악으로 실제 인도 어린이들이 배워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며 활용되고 있다. 길이가 짧고 구성이 단순하지만, 바이브레이션이 짙은 인도 특유의 창법과 전통 힌두 음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가사에 종교적 색채가 그대로 녹아있어 세계 음악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지역별로도 교과서 다문화 악곡에서 아시아 음악의 수록 빈도가 높은 중국, 일본 등지의 음악에 비해 매우 희소하다(Kim, 2019). 생활 속에서 힌두교를 접할 기회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인도의 힌두 음악, 그중에서도 인도 어린이들이 실제 부르는 바잔 음악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도와 힌두의 맥락을 이해하고 새로운 음악을 학습하는 의미 있는 다문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반성적 실습을 통해 바잔을 감상하면서 음

악을 둘러싼 주변 맥락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학습자(음악가)의 맥락 안에서 종교 음악을 만들어 내는 직접적인 음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역동적으로 창조해 낼 수 있다.

이 수업의 주요 음악 활동은 종교적 맥락 안에서 작사를 하는 것이다. 학습 목표는 인도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종교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힌두 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무랄리 마노하라'라는 어린이 바잔 음악의 가사에 담긴 종교적 주제를 이해하고, 교실 안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을 설정한다. 엘리엇의 음악 만들기 활동 중에서 '작사하기'를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공교육에서 종교적 주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바잔 음악 원곡의 가사는 특정 힌두신에 대한 찬양이 주된 주제이므로 가사의 의미를 깊이 탐색하고 힌두교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교실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은 바잔을 감상하고 원어로 노래하며 힌두 음악의 주제를 파악한 뒤 학생들의 소원을 담은 '마스코트 만들기'라는 교실 안 종교 맥락을 구성하고 '작사하기' 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연주하며 가상의 종교적 맥락 안에서 음악활동을 한다. 이는 바잔의 쓰임새와 가치를 체험하며 관련 주제를 '작사하기' 활동 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와 음악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학생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역동적 학습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반성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종교적 맥락의 다문화 음악 지도 계획 및 방안은 <Table 2>와 같다.



[Figure 2] Murali manohara's main melody and rhythm

<Table 2> Murali manohara guidance plan with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Program stage	Religious context	
1. Music making	Write the lyrics	
2. Musical challenge	Using Hindu music 'Bhajan' to create musically characterized lyrics	
3. Musical understanding	Appreciative music thinking and knowing(MTK)	
4. Objectiv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religious culture contained in Indian music 'Bhajan' for prayer and write the lyrics in it based on creating a group mascot.	
5. Strategy 6. Procedure	Coaching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song
	Modeling	Demonstration of the process writing the lyrics
	Exploration	Making a mascot and writing lyrics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Comparison · Reflection	Revising the lyrics by criticizing each other's work and practice process
	Articulation	Presenting the completed lyrics
7. Assessment	Writing wishes, the appearance of the masco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scot, and the process of writing lyrics	

2. 언어적 맥락: 동아프리카 동요, 마바타 마두구(Mabata madogo)

언어적 맥락의 다문화 음악수업에서는 스와힐리어로 된 동아프리카 동요를 부르고 연주하며 스와힐리어 특유의 언어적 리듬감과 경쾌한 분위기를 내면화한다. 스와힐리 음악의 다양한 예시를 찾고 제재곡과 비교해 보는 것도 생소한 언어 맥락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학생들은 마바타 마두구의 노랫말이 가진 음악적 요소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멜로디를 작곡하여 연주 및 공유한다.

오성일, 손민정(Oh & Son, 2021)의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 음악 연구'에서 소개된 마바타 마두구는 동물(오리)의 움직임과 소리를 스와힐리 가사로 재미있게 표현한 어린이 노래로, 선율과 리듬이 쉽고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있어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따라 부르고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 동아프리카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오리 인형을 만들거나 흉내 내며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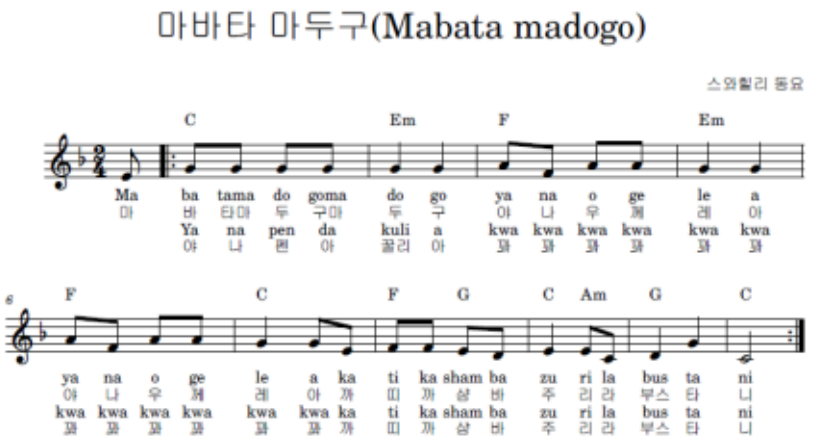
김용희, 방금주(Kim & Bang, 2007)는 아프리카의 언어가 고저와 강세가 분명하여 언어의 음조가 음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동아프리카 음악은 집단적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한 춤과 노래의 문화로써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리듬을 가진 동아프리카 음악 특유의 분위기가 노래나 춤으로 감정을 달래는 아프리카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초등학생에게 다문화

적 가치를 지도하기에도 적합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스와힐리어의 소리와 리듬, 동아프리카 음악의 정서를 담은 어린이 음악 ‘마바타 마두구’를 활용하여 언어 맥락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구성하였고, 스와힐리 원어 노랫말을 유지한 채 ‘작곡하기’ 활동을 통해 가락을 창작하도록 하였다. 원어 가사의 의미를 파악하며 손동작으로 표현하며 노래하고, 어울리는 멜로디를 음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작곡 및 기록한 후, 원어 가사를 붙여 곡을 완성한다. 학생들을 동아프리카 언어가 가진 소리와 강세, 리듬감 등을 내면화며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습득한다. 반성적 음악교육 지도 방안의 과정은 <Table 4>와 같다.

<Table 3> Mabata madogo Lyrics(Oh & Son, 2021)

Native Lyrics	Meaning
Mabata madogo madogo	Baby, baby ducks
yanaogelea yanaogelea	swim, swim
katika shamba zuri la bustani	in a beautiful garden
Yanapenda kulia	Ducks love to cry
kwa kwa kwa kwa kwaa kwa	kwa kwa kwa kwa kwaa kwa
kwa kwa kwa kwa kwaa kwa	kwa kwa kwa kwa kwaa kwa
katikashamba zuri la bustani	in a beautiful garden



[Figure 3] Mabata madogo sheet music(Oh & Son, 2021, p. 164)

<Table 4> Mabata madogo guidance plan with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Program stage	Linguistic context	
1. Music making	Composing	
2. Musical challenge	Using Swahili children's song to create a musically designed melody	
3. Musical understanding	Intuitive MTK	
4. Objective	Students can play the music they composed by putting in Swahili lyrics.	
5. Strategy 6. Procedure	Coaching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topic of the original lyrics of Mabata madogo
	Scaffolding	Internalize the rhythm and lyrics by singing with the beat
	Exploration	Composing using 'Chrome Music Lab Songmaker(tool)'
	Articulation	Singing with native lyrics to the melody you composed
	Comparison · Reflection	Revising the lyrics by criticizing each other's work and practice process
7. Assessment	Recording the music works, process of production, writing what they learned about Swahili culture, critique of each other's work, thoughts after the composition activities	

3. 민족적 맥락: 훌라, 빛나는 조가비(Pupu hinuhinu)

민족적 맥락의 다문화 음악 수업에서는 하와이의 대표 문화인 훌라 댄스와 음악을 활용하고 신체활동 창작하기 활동을 한다. 음악이 담고 있는 이야기, 춤의 동작, 의상, 연주 악기 등의 탐색은 훌라가 가진 폴리네시아인의 다양한 전통적 맥락을 이해하게 한다. 학생들은 악곡의 음악 형식에 맞게 새로운 동작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원곡이 가진 맥락과 자신들이 가진 정서 및 주제가 혼합된 새로운 문화로서의 훌라를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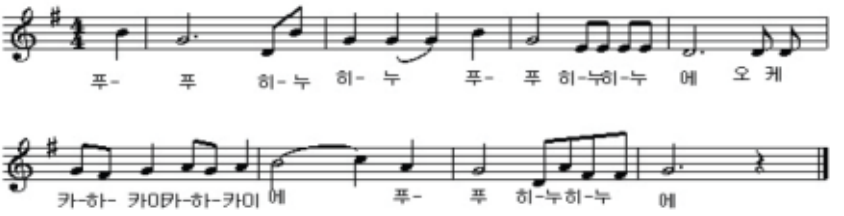
'훌라(hula)'는 폴리네시아인으로 대표되는 하와이의 대표적인 원주민 문화 중 하나이다. '훌라'라는 용어 자체가 '춤'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도 폴리네시아인에게 춤이라는 예술이 가지는 가치를 엿볼 수 있다(Park, 2012). 훌라 댄스는 예로부터 춤 자체가 가지는 오락적인 기능뿐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폴리네시아인이 자연의 한 가운데에서 생활하며 정령과 소통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음악과 몸짓에 어울리는 지역의 자연물을 이용한 장식품과 의상까지 포함한 종합 예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Park, 2012). 따라서 다문화 음악 수업에서 훌라 음악을 배우는 과정이 폴리네시아인의 민족 문화 전반을 아울러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제가 될 것이다.

‘다문화 음악 교수 방안: 하와이 음악(Kim, 2009)’에서 소개한 어린이 훌라 음악 ‘빛나는 조가비’를 활용함으로써 훌라 춤과 폴리네시아의 전통악기를 비롯한 문화, 역사, 지리적 배경 등의 사회 문화적 맥락의 학습, 가사와 멜로디에 담긴 알로하 정신을 체득하며 타문화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전통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원주민 문화가 가진 독특한 민족적 맥락이 다양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훌라는 앉아서 추는 노호댄스(Noho)와 서서 추는 루나댄스(Luna)가 있는데 앉아서 추는 노호댄스가 학생들의 접근이 쉽고 교실 환경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 다문화 수업에서의 신체활동 창작은 음악적 개념보다는 다문화 전통 음악이 가진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음악적 해석을 거치게 된다. 훌라의 전통적 가치가 녹아든 신체활동 창작을 위해 기존의 훌라 동작이 가진 의미와 정서를 내면화하고 춤을 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춤의 바탕이 되는 훌라 음악 역시 주제와 내용에 집중하며 감상하고 그 배경을 탐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지도 방안 및 과정은 <Table 6>과 같다.

<Table 5> Pupu hinuhinu Lyrics(Kim, 2009)

verse	Native lyrics	Meaning
1	Pupu hinuhinu Pupu hinuhinu e O ke kahakai kahakai e Pupu hinuhinu e	Twinkle twinkle brightly shining conch over there, on the beach, on the beach, the brightly shining conch
2	Pupu hinuhinu Pupu hinuhinu e E lohe kakou e Pupu hinuhinu e	Twinkle twinkle brightly shining conch listen all the brightly shining conch
3	Pupu hinuhinu Pupu hinuhinu e E moe moe e Pupu hinuhinu e	Twinkle twinkle brightly shining conch good night baby the brightly shining conch



[Figure 4] Pupu hinuhinu Sheet Music(Kim, 2009, p. 451)

<Table 6> Pupu hinuhinu guidance plan with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Program stage	Ethnic context	
1. Music making	Physical representation	
2. Musical challenge	Using Hula music to create a physical expression on the Epic level	
3. Musical understanding	Ethical MTK	
4. Objective	Students can create and dance physical expressions that fit the content of Hula thinking of the traditional values for Polynesian.	
5. Strategy 6. Procedure	Modeling	To tell the story of the music while watching the Noho dance video of Pupu hinuhinu
	Coaching	Learning about the traditional Hula culture of Polynesians, including hula music, costumes, themes and dances.
	Articulation	To create a physical expression that matches the theme and content of Pupu hinuhinu in groups and dance
	Comparison · Reflection	Revising their own products by criticizing each other's work and practice process
7. Assessment	Recording video clips of physical expression works, feedback on each other's products, impressions of activities during group activities and Hula's cultural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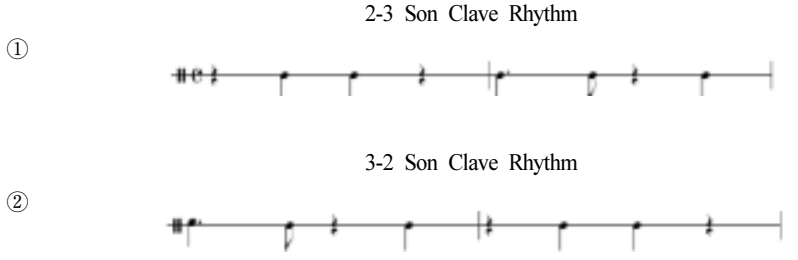
4. 역사적 맥락: 아프로큐반-쏜, 땅콩 장수(El manisero)

역사적 맥락의 다문화 음악 수업에서는 아프로 쿠바 음악의 감상과 전통 타악기의 이해를 통해 아프리카 음악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기본이 되는 리듬을 익혀 타악기로 연주한다. 이를 점차 발전시켜 리듬 패턴을 만들고 즉흥연주를 하며 쿠바 음악의 독특한 음악적 형태를 체득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파악한다.

아프로 쿠바 음악은 '쏜'이라고 부르는 클라베 리듬을 뿌리로 하여 점차 다양한 형태로 리듬 패턴이 변형되면서 룸바, 차차차, 맘보, 볼레로 등 여러 갈래의 음악으로 발전되어왔다. 음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음악은 멕시코의 '엘 콘도르 파사'와 푸에르토리코의 '체키 모레나' 등 두 세곡의 중복 수록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Kim, 2019), 여기에 아프로 쿠바 음악은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라틴음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로 쿠바 음악의 독특하고 흥겨운 리듬 형태는 다양한 라틴음악의 바탕이 되므로 음악 역사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반복되는 강력한 엇박자가 연주에 대한 욕구와 춤을 열정을 불러일으켜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냄은 물론, 배우기도 쉬워 교육적 의미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프로 쿠바 음악의 음악적 특징이 스페인으로부터의 식민 역사와 아프리카 흑인

들의 유입을 통한 혼혈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가장 주목해야 할 맥락은 역사적 배경이라고 보고 이를 다문화 수업의 맥락으로 설정하였으며 리듬을 중심으로 한 음악 활동을 실천하도록 수업을 설계할 것이다. 땅콩 장수는 1930년대 전통적 쿠바 리듬인 '쏜'을 룸바 식으로 변형한 형태의 음악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곡은 짧고 멜로디와 리듬이 간결하지만, 이전에 선정한 악곡들과 같이 어린이를 위해 작곡된 곡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중음악의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악보를 보고 제재 곡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며 음악 개념을 소화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감상을 통해 음악에 접근하고 간단한 리듬 패턴을 활용하여 연주 활동 및 음악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수업의 주요 음악 활동은 쿠바 음악의 음악적 특징을 결정하는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즉흥 연주하기이다. 쿠바의 역사적 맥락을 음악 활동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아프리카 노예의 유입으로 인해 발전한 쿠바 음악의 리듬적 특성, 즉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의 경쾌한 리듬, 서구의 식민지배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페인 멜로디와의 조화일 것이다. 쿠바 전통 음악의 기본 리듬인 '쏜' 리듬을 익히고 내면화하여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리듬을 창작하여 연주해 본다. 즉흥연주는,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의 순간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악적인 작품의 산출을 위해 어느 정도 계획된 리듬 패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학습한다. 즉흥연주 전에 음악적 흐름의 내면화를 위해 수차례 음악을 감상하고 모둠원들과의 음악적 합을 맞추는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합주 전에는 리듬의 음악적인 즉흥 창작을 위해 쿠바의 기본 리듬인 쏜을 연주하고 익힌다. 쿠바의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는 전통악기의 탐색을 병행하여 소리와 음색의 이해를 돕는다. 학생들은 개인의 즉흥연주가 모여 음악적 조화를 이루는 모둠 합주 연습과 발표 과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동하는 정서적 가치를 함양하고, 성공적인 즉흥연주가 주는 음악적 희열과 음악에 대한 모둠원들과의 공감이 다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Figure 5] Son rhythm sheet music(Hwang, 2013, p. 98)

<Table 7> El manisero guidance plan with reflective musical practicum

Program stage	Historical context	
1. Music making	Improvising	
2. Musical challenge	Improvising of musical expression with the emotions of Cuban Son music and the performer	
3. Musical understanding	Situational MTK	
4. Objective	Students can improvise by taking atmosphere of Son music that contains the characteristics of African music	
5. Strategy 6. Procedure	Coaching	Guessing the similarities to other cultures listening to El manisero
	Modeling	Learning Son clave rhythm and playing it with Cuban musical instruments
	Scaffolding	To change Son Clave rhythm
	Exploration	To take a musical instrument one by one and make a rhythm pattern that matches the tone
	Articulation	Group improvising
	Comparison · Reflection	Criticizing each other's work and process, sharing pleasure from improvising
7. Assessment	Recording improvising process, presentation and self-evaluation, Relating Cuban history to music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엘리엇의 역동적 다문화 교육 유형의 철학을 바탕으로 적합한 다문화 악곡을 선정하고, 그 악곡의 주요 맥락을 추출한 후 위의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 7단계를 적용하여 지도 방안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음악가, 감상가가 되어 음악을 듣고, 창작하며 다양한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현재를 사는 자신들의 맥락과 다문화 음악의 맥락과의 역동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산출물을 창조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공동으로 음악 실습에 참여하는 교실이라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학생들은 활발한 상호작용과 반복적인 비평을 통해 자신의 작품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반성적'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실습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게 된다.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의 활용은 첫째, 다문화 음악의 맥락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엘리엇의 '맥락안에서의 음악교육' 철학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다. 둘째, 다문화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실습과 행동을 강조했던 엘리엇의 음악 실습 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공존, 평화, 새로운 문화의 창달과 같은 다문화적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엘리엇의 반성적 음악교육이 담고 있는 '사회적 실천'을 음악 수업에서 구현하고자 함이다. 엘리엇의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은 다문화주의적 관점에 철학을 두고 있고 이를 학교 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한 6가지의 다문화 음악교육 유형을 문헌 고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그 중 역동적 모델을 기준으로 지도 방안을 설계하였다. 학생들에게 생소한 지역 및 주제 중심의 다문화 악곡과 종교, 언어, 종족, 역사라는 주제별 학습 맥락을 설정하여 반성적 음악교육 실습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사, 작곡, 신체표현 그리고 즉흥연주의 적극적인 음악 만들기 활동을 설정하였다. 둘째, 힌두 음악의 종교적 맥락, 스와힐리 음악의 언어적 맥락, 훌라 음악의 종족적 맥락과 쿠바 쏜음악의 역사적인 맥락을 교실 안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참여를 통한 음악활동을 전개하였다. 셋째,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감상자, 음악가로서 감식적, 직관적, 윤리적, 상황적 음악사고와 지식을 발전시킨다. 넷째, 수업은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명료화, 비교・반성, 탐색의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며 진행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수업 목표를 달성한다. 다섯째, 일련의 수업과정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동료들간의 피드백, 자기 성찰의 과정들은 모두 평가자료로 기록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음악적인 작품을 발전시켜 나간다.

본 연구의 자료로 쓰인 다문화 악곡과 학습 맥락들은 민족음악의 틀에 있는 교과서 다문화 음악에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새로운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로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다문화 음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편견들을 없애고 흥미 있게 다문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가 보다 적극적인 음악 활동과 깊이 있는 맥락 학습을 포함하는 다문화 수업으로서의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후속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엇의 6가지 다문화 음악교육 유형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각각의 유형은 각기 다른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다문화 음악교육에 적합한 역동적 모델 외의 또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와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 수준에 맞는 월드 뮤직을 더욱 다양하게 연구하고 발굴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발달로 더 많은 종류의 문화와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된 학생들에게 더욱더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음악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 계급, 세대, 생활상 등 다양성에 주목한 다문화 음악교육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안한 후속 연구 이외에도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실행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Bang, K. J., & Cho, H. I. (2005). The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of the school music education in the U.S.A..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3(2), 21-45.

Byeon, G. W. (2004).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4, 294-297.

Cho, H. I. (2006). *Developing a method of intercultural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adaptation of world music*(KRF-2003-074-GS0001).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Choi, E. S. (2020). The trend of past research studies from 1992 to 2019 and future research issues on Korean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2), 177-195.

Choi, S. H., & Lee, J. A. (2012). Multi-cultural society and rol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12, 285-316.

Choi, S. E., & Park, B. S.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for the comprehension of cultural diversity.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2(1), 87-105.

Chung, H. Y. (2007). Emotional experience in music: A study on robinson`s theory. *Mihak-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50, 275-313.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Elliott. D. J., & Silverman, M. (2019). *Music matt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NY: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21). *Music matt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Trans. Choi, E. S., Kwon, D. W., Jung, J. E., Shin, J. H., Seung, Y. H., Seog, M. J., Yoob, M. J., Lee, S. J., Chung, J. W., Moon, K. S., Choi, M. Y., Oh, J. H., & Ham, H. J. Seoul: Kyoyookbook.

Gim, E. G. (2014).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musical pieces in elementary music textbook: Comparison between the 7th curriculum and 2007 revised curriculum.*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n, S. B. (2021). [Contribution] 'The Squid Game' and the power of the Korean wave. Retrieved October 16, 2021, from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59

Hwang, J. A. (2013). *Afro-Cuban music analysis through rhythm analysis –The "Clave" rhythm and "Son" music that the basis of Afro-Cuban music.* Master thesis, Sangmyung University.

Hwang, K. J. (2010). A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ussion of mu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Social Studies Education,* 17(4), 199-214.

Kim, H. J. (2010). A modeling development and adaptation for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 middle levels teaching-learning proces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8, 203-239.

Kim, K. H., & Kwak, D. J. (2019). Contextualism-universalism controversy inherent to the purposes of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A possibility for "multi-musical"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3), 1-28.

Kim, K. R. (2019). *An analysis on the multicultural music contents in 5th and 6th grades' music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M. K. (2020). *A study of teaching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for the 1st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using the world traditional play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S. H. (2011). Ethnomusicological response to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Journal of Music and Theory*, 16, 8-28.

Kim, Y. H., & Bang, K. J. (2007). A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African music-centered on music of Senegal and Kenya.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0(1), 273-300.

Kim, Y. H. (2009). Teaching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music: Hawaiian music.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13(3), 437-455.

Koo, K. S. (2003). The theoretical system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27(3), 29-53.

Kwon, D. W. (1999) The influence of David Elliott's praxial philosophy on music education.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17, 10-37.

Lee, B. J. (2010). *Cultural meanings of afro-Cuban music and its performing principles*.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Lee, J. S., & Cho, H. I. (2004). The investigatin of school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problem concerning th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adaption of world music. *Studies in Korean Music,* 35, 241-268.

Lee, J. Y. (2012). *Research of choir teaching, applying the praxial music deucation philosophy of Elliott*. Master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1). *Music curriculum.* No. 2011-361. [Supplementary 12].

_____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Oh, S. I., & Son, M. J. (2021). A study of Swahili music in East Africa. *The Journal of Education,* 41(2), 151-168.

Park, E. S. (2001). A comparison of Bennett Reim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nd David Elliott's music matter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 53-73.